

삼지연에 새긴 첫 자욱

정철호

우리 생활의 흐름속에는 레사롭고 평범한 얼굴들이 새롭고도 눈부신 모습으로 떠올라 큰 충격을 안겨주는 순간도 있다.

얼마전 우리 학생들이 새로 창작한 소설들을 읽던 나는 저으기 놀랐다. 시대의 전진에 발을 맞춘 참신한 주제설정이며 특색있는 구성조직들이 첫눈에 안겨들었다. 아직은 초고이지만 참신하고 진실한 성격들이 이야기의 중심에서 살아움직이는것은 정말 놀라운것이였다. 작품들을 쓴 학생들의 창작능력을 알고있는 나로서는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이 너무나 놀라웠다.

작품의 창작동기와 과정에 대한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겼던 3학년의 체대군인출신의 청년대학생은 눈길을 들었다.

《저, 사실 우린 이번 방학기간에 삼지연군건설장에 가서 돌격대원으로 일했습니다.》

《삼지연에?》

《예, 거기서 함흥의 최동무랑 문천의 장동무랑 모두 만났습니다. 남포의 경희동문 우리보다 한발 먼저 와있었습니다.》

가슴이 환끈 돌아올라 나는 더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얼마나 장한 대학생들인가. 무릇 방학이라면 휴식과 안정속에서 새로운 학습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알려져있다.

《정말 훌륭한 결심과 실천이구만.》

《우린 삼지연에서 새해의 첫 자욱을 떼면서 자기의 작품들에 대한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삼지연의 서정이 우리 작품들에 비끼게 하고싶었는데...》

질은 눈섭밑에서 새로운 창조의 열정이 이글거리는 청년의 눈을 바라보는 나의 가슴속에 뜨겁게 고래치는것이 있었다.

삼지연! 한포기의 풀, 한그루 나무에도 선렬들의 넋이 스며있고 조국해방을 위해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발자취가 력력히 어려있는 백두산, 위대한 장군님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승엄하게 솟아있고 오늘은 이 땅의 눈부신 래일을 그려주는 행복의 고향으로 더욱 눈부시게 빛나는 혁명의 성지에서 대학시절의 새로운 자욱을 새긴 우리 청년들의 가슴속에 과연 무엇이 용암처럼 끓고있었던가.

삼지연군을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사회주의리상향으로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뜨겁게 호소하시

던 우리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끓는 가슴마다에 받아안은 우리 인민이다.

삼지연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건설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자욱이 더욱 뜨겁게 새겨진다. 지난해 8월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건설자들의 투쟁열의를 고무격려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들끓는 건설장전역을 바라보시며 당의 부름따라 지금 온 나라가 여기로 달려와서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자기 집뜨락처럼 정성다해 꾸리며 순결한 량심과 의리의 팍방울을 뿌려가고있다고, 백두산천지의 물이 아무리 맑고 깨끗한들 어찌 저들의 티없는 충정의 팍방울에 비기겠는가고 하시던 그날의 음성은 불덩이마냥 온 나라 인민의 가슴속에 타번졌다.

새해의 첫 출발선에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는 그날의 불덩이를 안고 우리 룡남산청춘들은 삼지연으로 떠난것이다.

내 조국의 래일이 벽차게 안겨오고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가는 위대한 인민의 힘과 기상이 궁지높이 안겨오는 백두산기슭에서 자랑찬 진군의 첫 자욱을 땀다.

무릇 청춘의 자욱을 어디에서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떼는가 하는데 따라 인생의 길을 곧바로, 힘차게 걸어가는가가 결정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조국땅 곳곳에서 눈부신 변혁이 일어나는 변영의 시대, 영광의 시대에 리상도 포부도 더 커진 우리 청년들! 당의 원대한 구상대로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 기어이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워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치고야말 불타는 결의로 뚫어번지는 삼지연건설장에서 힘과 열정을 다바친 그들은 더 뜨거운 심장으로, 더욱 억세어진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것이다.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어 기적의 열풍이 세차게 타번지는 시대의 절정에서 새해의 첫 자욱을 떼 우리 청년들이 올라설 창조의 언덕은 얼마나 높을것인가.

그렇다. 시대의 절정에서 새겨지는 청춘의 자욱은 그대로 아름답고도 보람찬 인생길의 명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폭풍같은 힘과 산악같은 용

기를 준다. 그 확신을 안고 떠난 기슭은 달라도 우리 청년들이 만난 곳은 혁명의 성지이다.

멋있는 청년들, 더욱 아름다워지는 그들의 모습들이 화폭처럼 비낀 작품들이 다시금 가슴을 뜨겁게 한다.

찬바람속에 자연의 꽃은 시들어버린다. 하지만 백두의 칼바람속에 우리 시대 청년들의 열정과 기백, 청춘의 꽃은 더 아름답게, 더 향기그윽하게 피어난다. 백두의 칼바람은 그대로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하여주는 시대의 열풍이기에 그속에서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우리 룡남산청춘들의 열정과 힘은 더욱 백배해진다.

사나운 눈보라속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만났을 이기며 백두의 창조본때로 기적과 위훈을 떨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백승의 비결이 무엇이고 광활한 미래를 앞당겨오는 힘이 무엇인가를 긍지높이 새겨주는 삼지연전구, 이곳에서 주체혁명의 골간으로 더욱 억센 성장의 발자욱을 새긴 우리 청년들!

어찌 그들뿐이라. 지금 이 시각 불꽃튀는 전투속에 우리 원수님께서 늘 마음속으로 그려보시던 사회주의리상향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속에 가장 고귀한 인생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삼지연전구

의 건설자들옆에 자기들을 나란히 세우며 힘찬 진군을 다그치는 이 나라의 강철전사들, 농업근로자들의 마음도 모두 혁명의 성지에 보람찬 창조의 첫 자욱을 새겼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백두령봉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을 폭풍쳐달리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 또 얼마나 눈부신 승리와 영광이 기폭처럼 나뭇길것인가.

제대군인출신 청년대학생이 남긴 열정의 목소리가 다시금 심금을 울린다.

《지금도 삼지연의 청년돌격대원들의 모습들을 심장에 그냥 새겨안고있는 저희들에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때의 열정과 호흡이 작품들에 비끼게 한다면 우리가 삼지연의 청춘들과 그냥 함께 전진하고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나의 가슴은 이제 그들이 새로운 호흡과 불타는 열정을 안고 완성할 작품들에 대한 기대로 뜨겁게 설레인다. 분명 삼지연의 맑은 물처럼 순결하고 백두의 이깔처럼 강직한 정신이 살아숨쉬는 작품일것이다.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창조의 열매—시대의 명작은 책상우에서가 아니라 시대의 들끓는 현실에서 태어나는 법이다.